
THE SHOES
FERDINANDO

GILLETTE 남자, 구두

THE FAMILY · 02

차이가 무엇인가?

1984년 11월 10일 오전 9시 30분이었다. 아버지가 내 방 문을 열고 빛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다. "Nando, 카라비니에리가 문 앞에 와서 너를 찾는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젠장?"

"아버지," 내가 말했다. "농담하시는 거죠? 좀 자게 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야 늦게 들어왔어요. 어제 Melania가 저를 완전히 녹초로 만들었거든요."

"Melania는 또 대체 누구냐? 엉덩이 들고 일어나, 세수하고, 옷 입고, 이리 나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뭘 원하는지 알아봐." "알았어요, 갈게요."

Posca 원사와 Patanè 하사는 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11월 17일에 카세르타의 Ferrari Orsi 기갑병 학교에 출두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 검찰청이 내일 아침 일찍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우리가 와서 당신을 데려가 감옥에 넣을 겁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방금 일어났거든요. 금방 돌아올 테니 이 영화의 후반부를 들려주세요. 참 웃기시네요, 정말이에요."

아버지는 군인들에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손짓을 하셨고, 그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부엌에서 돌아와 내가 소집 영장을 받았어야 했느냐고 묻자, 그들은 어머니가 서명한 수령증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바로 그 시각 직장에 계셨다.

나는 1초도 더 허비하지 않고 오해에 대해 사과했고, 그날 꼭 가겠다고, 요구르트처럼 유통기한이 다할 때까지 12개월 동안 입는 그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나는 준비를 했다. 내가 떠나던 밤, 아버지는 팔을 한 번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셨다. 내 몇 푼 안 되는 리라 — 오늘날로 치면 10유로쯤 — 에 조금만 보태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아껴 써라. 한 달에 60,000리라를 받을 거다. 그게 네가 살아갈 전부다."

어머니는 자는 척하시며 대답하지 않으셨다. 밤 11시 45분, 친구 Oreste가 자기 아버지의 Fiat 850을 몰고 우리 집에 왔다 — 그의 아버지는 철도청에서 일했다 — 그리고 나를 역까지 태워 주었다. 그때 나는 부모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들이 한 일이 내게는 당연해 보였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진짜 교훈이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6시 10분에 나폴리에 도착했고, 이어서 카세르타행 기차를 탔다. 역에서 병영 가는 길을 물었고, 정문까지 30분을 더 걸었다. 당직 장교에게 신고하자 그가 말했다. "또 지각생이군, 9/84 기수." 나는 새집에 들어서고 있었다. 1년 뒤에야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곧장 보급대로 보냈다. 그곳에서 내게 배낭, 전투화 두 켤레 — 낮은 것 하나, 높은 것 하나 — 허리띠, 양모 양말, 반합 두 개, 컵, 수통, 약을 넣는 강철 상자, 운동화, 위장복, 모자, 정복, 병영에서 쓰는 페즈 모자, 제1차 세계대전에서 곧장 튀어나온 듯한 사각팬티 두 장, 그리고 긴소매 양모 내의 두 벌을 지급했다. 나는 웃었다. 그 내의가 내 목숨을 얼마나 구해 줄지 아직 모른 채.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휘파람을 불며 걸어 나왔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장교 하나가 나를 세우더니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틀의 처벌을 내렸다. 운명은 내가 48시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침상에 갇혀 있도록 정했다.

이틀 아침 연속으로 나는 변소 당번을 맡았다: 280명이 똥을 싼 뒤 변기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안에 넣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역겹지 않았다. 그것 역시 군 복무였

다. 나는 모두가 같은 색의 똥을 싸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했다.

일주일 뒤, 내 고향 근처 출신의 동료 병사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Franco Nicolò, 5/84 기수였다. 민간인 시절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발 브랜드의 영업 사원이었다. 그는 나를 마음에 들어 했다. 40일 뒤 그는 내게 48시간 외박증을 구해 주었고,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날듯이 함께 집으로 갔다. 길 위에서 8시간,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집에서 어머니는 내가 탈영했느냐고 물으셨다. 어머니는 훨씬 더 오래 내게서 벗어나 있으리라 기대하셨던 것이다. 일요일 자정, Franco가 나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내가 차에 타자, 그는 5리터짜리 포도주 단지를 다리 사이에 끼고 있으라고 했다. 그의 원사에게 줄 것이었다 — 그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병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취해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이틀간 병가를 냈다.

그 뒤 한 장교가 사람들 앞에서 Franco를 위협했다. Franco는 대답했다. "병영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당신을 쏴 버리겠소." 장교는 그를 체포하게 하고 군사 재판에 넘겼다. 그는 군 교도소 60일을 받았다.

나는 그곳에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끝나자, 우리는 종종 직장 근처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으며 원사의 포도주를 떠올렸다.

그는 셀프서비스 신발 가게들을 열었고, 장사는 잘되었다. 내가 무언가를 사러 들를 때마다 나는 왕 같은 대접을 받았다 — 할인 위에 또 할인. 그러나 그가 나보다 더 나은 영업 사원이라는 것은 나만 알았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GILLETTE 남자였다.

신병 교육대

훈련이 시작되었다: 소총 하나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그다음 또 하나, 그다음 권총. 그것들을 닦는 일. 행군, 달리기, 휴식, 식당, 병영 주변의 필수 근무, 사병 식당, 부사관 식당, 그리고 장교 식당.

크리스마스였다, 밤 9시, 얼어붙을 듯 추웠다. 그 양모 내의는 생명줄이었다, 특히 우리가 첫 보초 근무를 서기 시작했을 때. 그러다 그들은 보상이랍시고 우리에게 화약고 경비 15일을 주었다. 씻는 것은 신기루였다. 팬티 속에서는 더 이상 기생충과 때를, 점과 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

기온은 미친 수준이었다: 영하 30도. 오줌을 누는 것은 불가능했다 — 얼어 버려서, 자지에 오줌 고드름을 매단 채 돌아다녀야 했다. 하하하하하.

그리고 잠들 생각이라도 했다가는 처벌과 감옥을 각오해야 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었다: 우리는 바로 거기, 죄수들과 탄약 공장들 사이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어느 비번 날 저녁, 나는 장교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매력과 권력을 내뿜는 장교들과 함께 무도회에 도착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여자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기갑 기병대 대위로 군을 떠난 뒤, 22세의 나의 아버지가 겪으셨을 어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차. 바로 내가 몰아야 했던 그것, 다만 나는 그 안에 몸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오후, 중대장이 외부 임무를 위해 나를 불렀다. 한 여자를 차로 나폴리까지 모셔다드리는 일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말해 주지 않았다. 나중에 알았다: 그녀는 병영을 지휘하는 장군의 딸이었다.

선택은 내게 떨어졌고,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 주지 못했다. 나는 병사였다. 이것은 공식 임무였고, 수당이 따로 붙었다. 그러나 돈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Carla였다. 38세, 결혼한 적도, 약혼한 적도 없었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 아무리 줄여 말해도 도발적이고 짓궂었다.

그것은 나의 첫 '좇은' 일이었고, 전혀 나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다시 찾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때 나는 이미 육군 운동선수 중대로 옮겨져 있었다. 나는 럭비를 했고, 나중에는 군 국가대표팀에 들어갔다.

구두

신발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이 드문 물건이지만, 몸과 마음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시절에는 신발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 발을 마르게 지켜 주고 온몸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 주는 유일한 소재였으니까.

나는 신발을 많이 닳게 한 적이 없다. 가진 신발은 아주 적었고, 있는 것은 늘 고쳐 신으려 했다. 내가 신경 쓴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기능이었다. 어떤 신발로든 원하는 누구의 엉덩이든 걷어찰 수 있고, 그 신발에 명품 상표가 붙어 있는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오늘 아내가 셀프서비스 신발 가게에 들르자고 한다. 그 가게가 한때 나의 전우 Franco의 것이었다는 기억이 나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간다.

40년이 흘렀다. 가게는 그대로다 — 배치도 같다. 아내는 신발을 고르면서, 신어 보러 의자 쪽으로 가기 전에 상자들을 내게 건네 들고 있으라 한다.

그사이 한 여자가 여성화 코너가 어디냐고 묻고, 나는 방향을 가리켜 준다. 한 신사가 어떤 신발이 41 사이즈로 있느냐고 묻고, 나는 그 사이즈는 다 팔렸다고 말해 준다. 신발을 신어 보던 두 여자가 내 의견을 묻고, 나는 그 신발이 정말 근사하게 어울린다고 말해 준다.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다. 20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점원이 되어 있다. 모두가 내게 온다. 남자들에게는 차갑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여자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에 온갖 감탄을 보낸다.

계산대에 사람이 가득 차 거의 마비될 지경이 된다. 주인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신발값을 치르고 나가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그에게 Franco를 아느냐고 묻는다. "네," 그가 말한다. "제 아버지세요." "그럼 안부 전해 주세요."

우리가 나갈 때 여자들이 나를 가리키며 손을 흔든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다.

문제는 두 시간쯤 뒤에 생긴다, 딸이 그 신발 가게에 다시 가고 싶어 할 때. 그곳에서 주인의 아들이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 말한다. "Frega 씨, 계산대에서는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손님들이 듣고 소란이 날까 봐서요. 아버지는 2021년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고, 2023년에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나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와 함께 겪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그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꼭 껴안는다.

딸은 신발을 사고 값을 치르고, 우리는 나온다. 작별 인사를 하며 아들이 외친다. "또 오세요. 저는 선생님 같은 영업 사원이 필요해요, 공짜로 일하는." 그러자 나는 말한다. "내 책은 아직 안 내려받았군요, 그렇죠?"

그는 웃는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Ferdinando